

최연소 우승 기록 남긴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오늘 개막 김시우, 좋은 기억 안고 우승 노린다

4년 전 만 21세 11개월 때 정상에
“최연소 우승 기록 깨지지 않기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2017년 우승했던 김시우(26)가 자신의 최연소 우승 기록이 깨지지 않기를 기원했다.

김시우는 11일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에서 개막하는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총상금 1500만 달러)에 출전한다.

4년 전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김시우는 당시 만 21세 11개월 나이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제패, 2004년 애덤 스콧(호주)이 세웠던 이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만 23세 8개월)을 경신했다.

김시우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PGA 투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연소 우승 기록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계속 남으면 좋겠다”며 “이 대회는 매우 특별하게 여겨진다. 최경주 선배님이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 처음으로 우승하셨고, 그다음에 나라는 사실은 내게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경주(51)가 2011년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했고, 김시우가 2017년에 그 뒤를 이었다.

김시우는 2016년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첫 승을 따냈고, 2017년 5월 이 대회에서 2승



김시우

을 달성했다. 이후 한동안 우승이 없다가 올해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개인 3승 고지를 밟았다.

김시우는 2017년 우승 당시 3라운드 후 허리 통증이 심했다는 사실도 회상했다.

그는 “마지막 날 경기 시작 30분을 앞두고 허리 근육에 통증이 생겨 고생했다”며 “(2위에 3타 앞선 우승이었지만) 마지막 18번 홀 두 번째 샷까지 치고 나서야 우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 대회 우승 트로피가 역대 챔피언들의 얼굴을 합쳐서 만들었다는 말에 김시우는 “이 트로피에 제 얼굴이 함께 들어가 있게 돼서 기쁘고, 새로운 트로피에 이름을 새긴 것을 봤는데 자랑스럽기도 하다”며 “트로피를 다시 보니 또 한 번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에 대해서도 “나무나 해저드, 벙커가 많은 코스지만 이 대회는 첫해부터 느낌이 좋았다. 나에게 딱 맞는다는 느낌도 들어서 항상 때마다 자신 있게 경기했다”고 덧붙였다.

김시우는 지난해 이 대회 첫날 7언더파를 치고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대회가 2라운드부터 취소된 바 있다.

김시우는 “사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이후 또 승수를 금방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3년 8개월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다”며 “올해 우승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즐거움 마음으로 골프를 하다 보면 다음 우승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시우는 이번 대회 1, 2라운드를 해리스 잉글리시(미국),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와 함께 치른다. /연합뉴스



올해 첫 대회인 춘계전국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등 9개의 메달을 획득한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펜싱 선수단.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장애인체육회 펜싱 올 첫 대회서 금 4

춘계대회서 메달 9개 획득
조은혜 전 종목 석권 3관왕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펜싱 선수단이 올해 첫 대회에서 금메달 4개 등 9개 메달을 따냈다.

10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펜싱 선수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경남 산청군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춘계전국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조은혜는 B등급 에페, 플뢰레, 사브르 전 종목을 석권, 금메달 3개를 수확했다. 조은혜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에서 변함없는 실력을 선보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극마크를 차지할 1순위 후보로 떠올랐다. 장애인 선수들은 A등급

(허리 사용이 가능한 선수), B등급(허리를 사용이 불가능한 선수), C등급(경추장애인·비정식 종목)으로 나뉘어 경합한다.

지난해 대한장애인펜싱협회의 신인선수로 발탁됐던 신승리는 A등급 에페, 사브르, 플뢰레 전 종목에서 동메달 3개를 추가했다.

이찬미는 B등급 에페에서 은메달을, 사브르와 플뢰레에서 각각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이찬미는 올해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재로 선발된 기대주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2021년 첫 국내 대회로, 광주 장애인 펜싱 선수단의 쾌거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장애인체육의 새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스노보드 클로이 김 '창공을 훨훨'

재미교포 '스노보드 천재' 클로이 김이 미국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열리는 2021 FIS 스노보드 챔피언십 출전을 앞두고 10일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굴의 왕' 킹스버리, 세계선수권 2회 연속 2관왕

'모굴의 왕'으로 불리는 미카엘 킹스버리(29-캐나다)가 국제스키연맹(FIS) 프리스타일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모굴에서 2회 연속 2관왕에 올랐다.

킹스버리는 1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1 FIS 프리스타일 세계선수권 남자 듀얼 모굴 결승에서 80.51점을 받아 67.57점을 기록한 맷 그레이엄(호주)을 꺾고 우승했다.

전날 열린 모굴에서도 우승한 킹스버리는 2019년 미국 유타 대회에 이어 세계선수권 2회 연속 2관왕을 달성했다. 남자 모굴에서 세계선수권 2회 연속 2관왕은 킹스버리가 처음이다.

현역 최강으로 꼽히는 킹스버리는 2013년과 2019년, 2021년 대회에서 모굴 개인전 금메달을 땀, 두 명이 나란히 달리며 승부를 겨루는 듀얼

모굴에서는 2015년과 2019년, 2021년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다. 은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더해 세계선수권 총 메달 수는 11개로 늘었다.

킹스버리는 2011-2012시즌부터 2019-2020시즌까지 9년 연속 FIS 월드컵 모굴 종합 우승을 독식했다. 2020-2021시즌에는 부상 때문에 10연패 달성은 하지 못했지만 세계선수권 2관왕으로 건재를 알렸다.

정대운(16·영락중)은 지미 살로넨(핀란드)과 1회전 경기에서 완주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벤투호 모처럼 출격 10년만의 한일 평가전 25일 일본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여파 월드컵 예선 일정 미뤄지면서 전격 성사

코로나19 장벽을 뚫고 10년 만에 한일 축구대표팀 평가전이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일본축구협회와 25일 일본 요코하마의 닛산 스타디움에서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르기로 합의했다”라며 “키오프 시간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선경기로 치러지는 한일전은 2011년 8월 일본 삿포로 맞대결(0-3패) 이후 10년 만이다.

2011년 이후에는 동아시아연맹(EAFF) E-1 챔피언십(옛 명칭 동아시아컵)에서만 네 차례 대결해 한국이 2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역대 한일전에서 42승 23무 14패로 앞서고 있다. 이번 한일전은 역대 80번째다. 일본 원정으로 치른 30경기에서도 한국이 16승 8무 6패로 우세했다.

80번째 한일전이 열리는 닛산 스타디움은 2002 한일 월드컵 결승전 장소다. 이곳에서는 두 차례 한일전이 열렸고, 한국이 1무 1패로 밀렸다. 1998년 3월 다이너스티컵에서는 1-2로 패했고, 2003

년 12월 동아시아컵에서는 0-0으로 비겼다.

이번 한일전은 코로나19 여파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일정이 6월로 미뤄지면서 전격 성사됐다.

일본축구협회 실무진이 먼저 평가전을 열자는 제의를 해왔고, 양측은 긍정적인 교감을 나눴다. 이어 정식 공문이 대한축구협회에 도착하면서 10년 만의 평가전이 성사됐다.

벤투호에 소집되는 K리그 선수들은 귀국 후 모두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처음 7일 동안 코트트 격리를 하고, 나머지 7일은 소속팀에 복귀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전환된 축구협회 사무총장은 “6월에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4경기와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최종예선을 앞두고 대표팀의 경기력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월드컵 예선 등을 고려할 때 귀중한 A매치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나리
2관	리스타트
3관	웨이 다운, 유어 아이즈 텔
4관	미나리
5관	미션 파서블
6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9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통과 제리
7관 세네카를	소울, 허트 로커
8관 세네카를	브래드, 암모나이트, 카오스 워킹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극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시즌1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